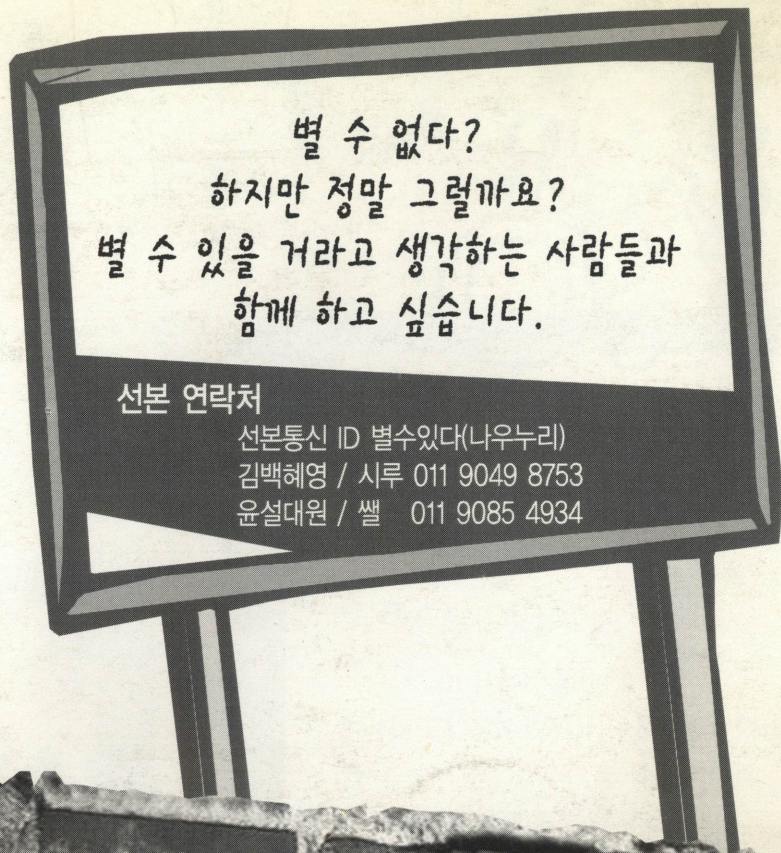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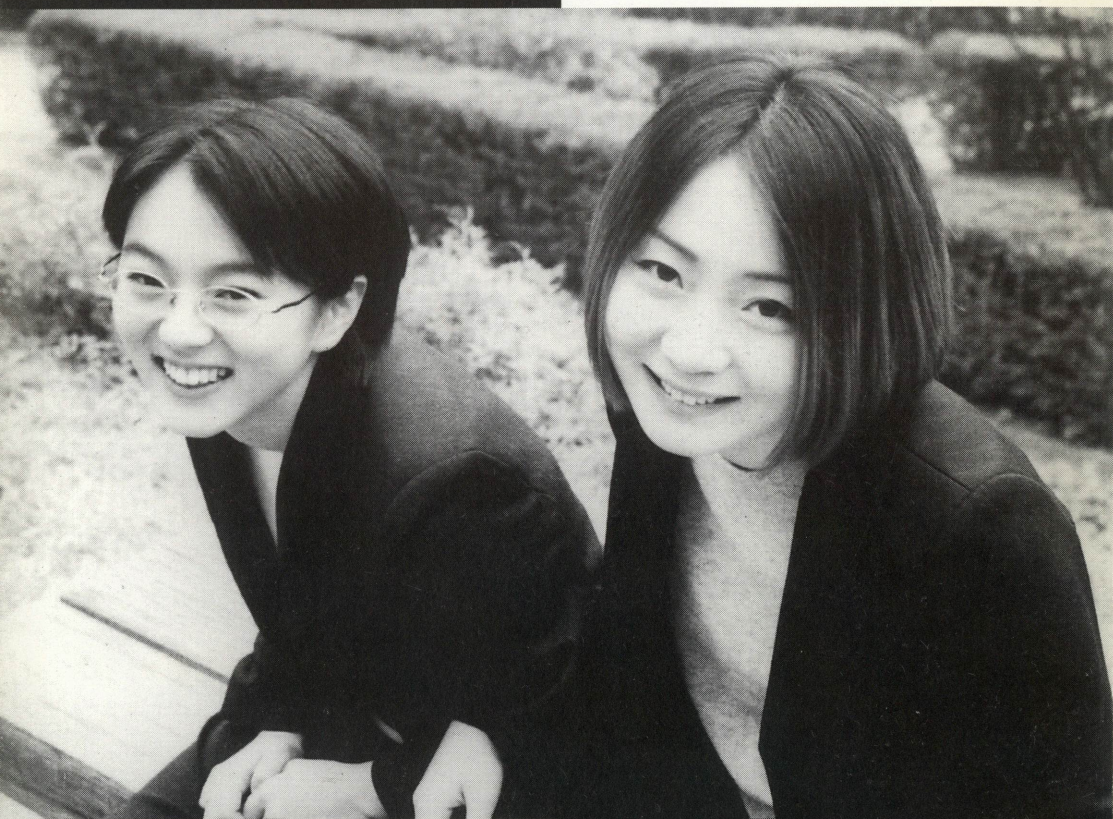
글세...

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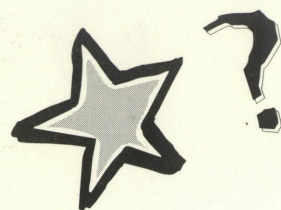
- 1998년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입학
사회과학대 역사학회 PROS 활동
- 1999년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활동
제1회 월경페스티벌 '유혈남자' 기획단 활동
- 2000년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의 활동
여성연대한판2000 기획단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의 활동
- 2000년 제13대 연세총여학생회 정후보출마

김이학실 / 윤 (사회과학계열 3)



김김진선 / 표름 (인문학부 3)

- 1998년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입학
심리 11반 사회과학학회 변압기 활동
심리 11반 노래학회 '마음소리' 활동
- 1999년 심리 11반 심리학회 변심 활동
문대 여성모임 '모반' 활동
- 2000년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의 활동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여성노동' 활동
- 2000년 제13대 연세총여학생회 부후보출마



별 수 있다!





여성도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다

신입생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연세는 그 사실을 알긴 하는걸까?
그리고 나머지 60%와 40%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늦은 밤, 동아리방에 혼자 있기도 무섭고
교수들은 줄고 있는 여학생에게
밤업소 나가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생리통 땀에 괴로워 죽겠는데
남자동기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주눅들 필요 없잖아.
40%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는거야.

별

슈

있다!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왜 성에 대해
하고 싶은 말들은
여자화장실에만 머물러야 하는걸까?
취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여성들의 고민은
왜 중도 6층 여휴에 있는 흡연실에만
간혀있어야 하는걸까?

우리에겐 하고 싶은 말들이 있 / 다!
단지 얘기할 공간이 없었을 뿐.
하고 싶어도
입밖으로 꺼내놓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할 수 있다

남자동기 왈,
“너도 화장좀 하고 다녀라.”
요럴 땐 요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니가 보태준 거 있어?”

축구, 농구, 야구... 그들만의 리그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겠어.
나도 뛰겠어.
우리들의 리그를 시작하자.
연세야, 이제 나를 응원해 봐.

가능성은 이미 우리안에 있어.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제 해보는 거야.